

# 지역사회와 우체국

## 1. 더욱더 신장할 일본

지금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는 현재 격렬한 구조적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그만큼, 일본은 젊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치나 행정분야, 더구나 매스콤등의 세계에서는 곧잘 「고령화사회의 진행」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경제에 관하여도 안정성장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구구성이나 경제성장율을 생각하면 전적으로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나 행정은 이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본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코, 일본의 앞길이 막힐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란 곧 성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젊은 세대는 그만두고라도 50대나 40대의 많은 일본인들은 이른바 “위기감”을 도약의 계기로 하여 열심이 일해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찬양할 만한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사를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고령화사회, 성숙화사회에의 이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두운 면만 내세우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더욱더 보다 좋은 인간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처방책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 2. 지역활성화로 풍요로운 사회

현재의 일본의 과제를 묶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의 풍요를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운영 계획등에서도 정책의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명시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주요선진국에서 제1위이다. 세계제일의 무역흑자를 계속 내고는 있지만 국민의 생활실감으로서는 결코 경제대국이라는 상황에 있지않다. 물가는 높고, 주택사정은 열악하며, 통근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는 뒤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무척이나 길다. 따라서 정말

1. 더욱더 신장할 일본
2. 지역활성화로 풍요로운 사회

로 경제대국인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문, 의혹에 부응하는 것이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東京이나 大阪, 名古屋등 거대도시권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극집중형으로부터 다극분산형으로 국토를 고쳐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일생을 힘껏 일해보아도 내집을 마련할 것 같지 않다. 1시간이상이나 만원 전차에 시달리지 않으면 출근도 통학도 할 수 없다”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일본의 사회는 거대도시에만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결국에는 형편없이 높은 지가상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가가 비싸므로 도시교통이나 도시도로의 정비조차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3. 주민의 기대를 삶의 보람으로

그러면, 다극분산형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거야말로 말하긴 쉽지만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과제이다. 정치가 안정되고 이상에 불타는 실행력있는 지도성이 강한 정치가 등장하지 않는한 기대하기에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방관하고만 있다면 그야말로 경제대국을 자랑할만큼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는 한발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문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것이 21세기를 직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풍요로운 사회만들기의 길이며, 삶의 보람일 것이다.

연고가 있어, 작년, 필자는 우정성의 지방정책에 관한 간담회에 출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석상에서, 다극분산형의 국토만들기 또는 내수의존형의 경제만들기 라는등 현재의 국민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보고서는 1989년 2월에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번거롭다고 하겠지만,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읽기만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일하는 보람을 좀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다.

### 4. 우체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제안을

우정성은 이보고서를 기다리기 전에 이미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경제의 국제화라든가 고령화등에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이라든가 유통기구의 합리화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예를 들면 텔레토피아라든가 텔레포토 등의 구상이 여러지역에서 구체화되어, 정보의 충실이라는 면에서 풍요하고 매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

아는 바와같이 90년도예산의 편성에 관

- 3. 주민의 기대를 삶의 보람으로
- 4. 우체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제안을

런하여 이들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은 일층더 강화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고도정보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정비, 우체국창구에서의 서비스의 다양화, 실버플랜저금의 창설, 간이보험과 우편연금의 통합 등의 신규정책은 정작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정행정과 우정사업의 중핵은 전국의 우체국인 것이다. 그 우체국의 업무가 다양화, 활성화, 효율화되지 않는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채용된다 하여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정사업은 전개될 수 없다. “특산품소포”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이디어를 짜내어 성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는 東京 교외의 커다란 개발지에 살고 있는데, 최근, 그 중심지를 재개발하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상인 것이다. 거기에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사도 지방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체국의 직원이 내놓을 것을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 주민표, 패스포츠 등의 중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생활의 거점으로까지 우체국의 기능을 높이는 의욕을 우체국의 직원에게 바라고 싶다.

(이소바다 세무조사위원)  
(포스트 21 89. 10)